

		보 도 자 료		JEONJU IFF
배포일	2026. 5. 19	보도 요청일	2026. 5. 19	
담 당	홍보미디어팀	취재 문의	1899-5433 (홍보미디어팀: 4번) publicity@jeonjufest.kr	

전주국제영화제 배급투자작 〈두 배의 자유〉 칸 감독주간 진출

- 리산드로 알론소 감독 신작, 전 세계 최초 공개
- 작가 감독 신작 선구매로 글로벌 영화도시 전주 위상 강화
- 전주국제영화제,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선순환 모델 제시

전주국제영화제(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·정준호)가 배급투자한 리산드로 알론소 감독의 〈두 배의 자유 Double Freedom〉가 칸 감독주간에 진출했다. 작품은 5월 16일과 17일 양일간 프랑스 칸에서 감독과 출연진 참석 아래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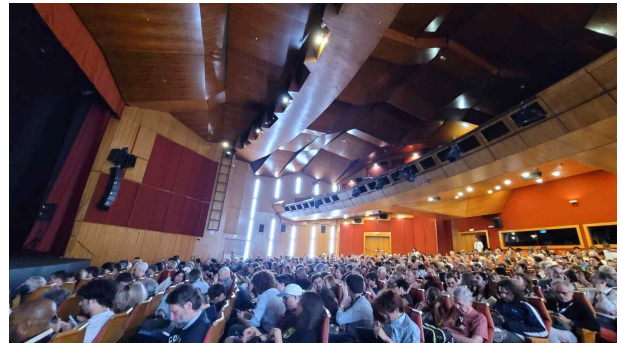
전주국제영화제는 작가 감독을 발굴하고 지지해 온 전통을 이어가며 리산드로 알론소의 신작 소식을 접한 후 지난해부터 논의를 거쳐 올해 초 〈두 배의 자유〉를 배급투자작으로 선정했다. 상영이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 전 세계 영화 관계자의 박수로 가득 찬 크루아제트 극장(Théâtre Croisette)에 전주국제영화제의 이름과 로고가 떠오르며 그 위상을 드높였다.



△ (좌측부터) 주인공 미사엘 사베드라, 문성경 프로그래머, 리산드로 알론소 감독

리산드로 알론소 감독은 뉴 아르헨티나 시네마를 대표하는 인물로, 2001년 <자유>가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되며 전 세계 영화계의 이목을 끌었다. 이후 <죽은 사람들>(2004), <리버풀>(2008), <도원경>(2014), <유레카>(2023) 등 그의 모든 장편영화가 칸영화제 다양한 부문에 초청된 바 있다.

<두 배의 자유>는 그의 7번째 장편영화로 첫 장편 <자유>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다. 감독은 경력이 쌓일수록 영화 제작 규모가 커졌고, 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서 벗어나고자 소규모 저예산 영화로 돌아왔다고 밝혔다. 온전한 창작의 자유를 찾고자 <자유>를 만들던 당시 주류 사회 밖 자연 속에서 고독하게 노동하며 살던 주인공을 관찰하던 방식으로 <두 배의 자유>를 연출했다. 당시 주인공이었던 비전문 배우 미사엘 사베드라(Misael Saavedra)가 출연해 25년이 지난 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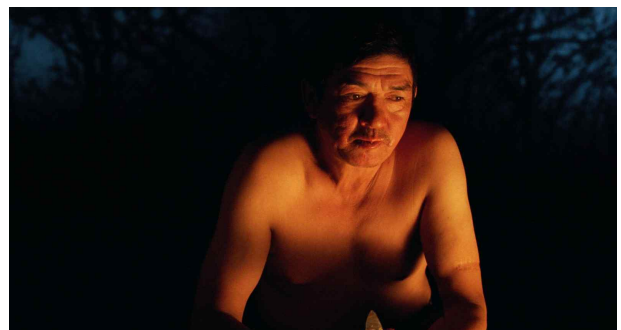


△ 제79회 칸 영화제 <두 배의 자유 Double Freedom> 상영 현장

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'가능한 영화'라는 섹션을 신설해 예술적 상상력으로 제작의 다양성을 추구한 영화를 주목했다. 영화가 산업에서 강요하는 조건과 방식과는 다른 환경에서도 제작되고 구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. 리산드로 알론소의 신작 배급투자는 전주국제영화제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영화에 대한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첫 상영 직후 많은 영화 관계자는 최근 작가 감독 또한 제작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전주국제영화제가 좋은 예술영화 제작 및 배급에 투자하며 영화 생태계에 선순환을 이끄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.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"영화제가 단순히 상영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좋은 영화가 제작, 배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하는 결정은 결과적으로 영화 존재의 다양성에 이바지하려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노력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"이라고 말했다. <두 배의 자유>는 2027년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한국에서 공개된다.

전주국제영화제는 우수한 해외예술영화 소개를 위한 수입·배급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. 올해 시네마천국 섹션에서 선보인 켈리 오설리반, 알렉스 톰프슨 감독의 <마우스> 역시 관객과 평단의 호평 속에 전주국제영화제 수입작(엠엔엠엔터내셔널(주) 공동수입)으로 하반기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.



△ <두 배의 자유 Double Freedom> 스틸